

매일경제 2007년 1월 8일 월요일

정치·외교안보 A7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공약 검토

고건 前국무총리

고건 전 국무총리 측이 최근 대선 공약으로 ‘한·일 해저터널’ 건설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건 총리의 한 측근은 7일 “고 전 총리의 자문그룹이 내부 워크숍에서 ‘한·일 해저터널’ 건설 공약 아이디어를 내놓았다”며 “조만간 공약 채택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일 해저터널은 거제도과 일본 쓰시마, 규슈를 잇는 235km 구간을 해저 철도와 해저 고속도로로 연결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80년대 초 처음 아이디어가 제기된 후 꾸준히 관심을 모아 왔으나 구체적인 정책으로 옮겨지지지는 못했다.

고건 총리 측은 이미 주요 의제로 부각되고 있는 한·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내륙운하’와 박근혜 전 대표의 ‘일차 페리’ 공약에 맞

서 상당한 파괴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한·일 해저터널이 실현되면 양국의 지리적 단점이 극복되고, 중국에 맞서 물북아 물류 허브 구현이 가능해진다는 것. 특히 건설비가 60조~200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경제에도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고건 총리가 이 아이디어를 대선 공약으로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고건 총리 측의 다른 관계자는 “새로운 것도 아니고 고건 총리가 구상하는 정책공약 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 같다”며 “IT, BT, 서비스 산업 등을 통한 미래형 경제를 구상중이기 때문에 대규모 국토개발 계획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고 말해 성급하게 대선 공약으로 부각되는 데 대해 제동을 걸었다. 전정환기자

毎日経済 2007年1月8日 月曜日 政治・外交安保

「韓日海底トンネルの建設」公約検討

高建（コ・ゴン） 元国務総理

高建前国務総理側が、最近、大統領選の公約として「韓日海底トンネル」建設案を検討中であることが明らかになった。

高建総理のある側近は、7日、高建総理の諮問グループが内部のワークショップで、「韓日海底トンネルの建設を公約とするアイデアを出した」「まもなく公約として採択するかどうか決定されるようだ」と語った。

韓日海底トンネルは、巨済島と日本の対馬、九州を結ぶ235Kmの区間を海底鉄道と海底高速道路で結ぶ大規模プロジェクトだ。80年代初めに初めてアイデアが出された後、常に関心を集めてきたが、具体的な政策となることはなかった。

高建総理側は、すでに主要な議題として浮かび上がっているハンナラ党のイミョンバク前ソウル市長の「朝鮮半島内陸運河」と、パククネ前代表の「列車フェリー」公約に対峙する相当な破壊力を持つものと期待するわけだ。

韓日海底トンネルが実現すれば、両国の地理的断絶が克服され、中国に合った東北アジア物流ハブの実現が可能となるもの。特に建設費が60兆～200兆ウォン（7兆～24兆円）に達する超大型プロジェクトであり、経済にも好材料として作用するものと見られる。

しかしながら、高建総理がこのアイデアを大統領選の公約として認めるかは未知数である。高建総理側の別の関係者は、「新しいことではなく高建総理が構想する政策公約の方向性は一致しないようだ」とし「IT、BT、サービス産業などによる未来型政策を構想中なので、大規模国土開発計画は念頭にはない」と語り、急に大統領選の公約として浮上するということについて牽制をかけた。